



농어업위, 수출 천억 달러 식품산업을 꿈꾸다

- 민-관 협업으로 『수출 천억 달러 식품산업 육성 T/F』 발족
- 클러스터와 첨단 융복합 기술 기반으로 식품 수출 활성화 박차

대통령소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이하 농어업위, 위원장 장태평)는 6월 27일 전북 익산에 위치한 국가식품클러스터에서 「식품기업 현장 간담회」를 개최하여, 우리 식품산업을 수출 천억 달러 산업으로 성장시키기 위한 비전을 제시하고 수출 확대 방안을 모색하였다. 이를 위해 농어업위원회에 『수출 천억 달러 식품산업 육성 T/F』를 발족하여 구체적인 방안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이번 식품산업 육성 간담회는 농어업위 장태평 위원장, 농어업위 농수산 식품분과위원회, 김영재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이사장, 농식품부 클러스터추진팀장 등 관계기관 뿐만 아니라, CNC커피, 메디프레소, (주)그린로드 등 국가식품클러스터에 입주한 기업들이 참석하여 K-Food 수출 확대를 위한 정책 및 제도 개선 방향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개진하였다. 현장 간담회에 앞서 (주)하림을 방문해 첨단화된 식품제조 공정을 둘러보고 우리 식품산업의 스마트화로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농어업위가 식품산업 수출 육성의 시작점으로 익산을 방문한 것은 첨단 기술을 실현시킬 수 있는 국가식품산업 클러스터가 자리잡고 있고, 근거리에 식품 수출의 허브가 될 수 있는 새만금이 있기 때문이다. 국가식품 클러스터 조성은 2008년 38억 달러에 불과한 농수산물 수출을 100억 달러로 늘리겠다는 목표 하에 핵심적으로 추진된 과제이다. 그 결과 2021년 농수산물 수출 100억 달러를 돌파하였고, 작년에는 수출 120억 달러라는 쾌거를 이뤘다.

간담회에 참석한 관계자들은 우리나라가 세계 교역시장에서 차지하는 수출의 비중이 3%임을 감안하면, 5조 달러에 육박하는 전 세계 가공식품 교역에서 우리나라가 최소 1천억 달러 이상의 수출을 달성할 수 있는 성장 잠재력과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 공감하였다. 현재 우리나라 수출 1천억 달러 이상은 반도체산업 하나 뿐이다.

농어업위는 우리 농수산물식품산업의 새로운 도약과 미래를 꿈꾸고자 한다. 우리 식품산업이 미래 우리나라 경제를 견인하는 핵심 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걸림돌은 제거하고, 농어업의 성장과 식품 수출의 기반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앞으로 농수산물식품분과를 중심으로 『수출 천억달러 식품산업 육성 T/F』를 구성하여 식품산업 수출을 위한 방안을 집중 논의하고,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식품기업과의 간담회를 추진하여 식품산업 성장 플랜을 도출해 나갈 예정이다. 식품산업은 과거와는 달리 최첨단 융복합기술이 접목되고, 클러스터에 기반한 산업으로의 발전해 나가야 한다.

장태평 농어업위 위원장은 “이미 연구 기반과 기술 지원력을 갖추고 있는 국가식품클러스터가 식품의 고부가가치화를 이끌고, 중국·동남아를 겨냥하여 새만금이 식품산업의 허브 역할을 담당한다면 현재 1300억 달러를 수출하는 네덜란드 푸드밸리에 버금가는 아시아의 푸드밸리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는 비전을 제시하면서, “농어업위가 농어업을 견인하는 미래 핵심 산업으로서 식품산업 성장 방향을 제시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네덜란드 총 수출액의 22%가 농산물이며, GDP의 10%에 해당하는 부가가치가 푸드밸리에서 창출

※ 첨부: 현장 사진

담당 부서	농수산물식품팀	책임자	팀 장	도윤정 (02-6260-1231)
		담당자	사무관	오세영 (02-6260-1236)